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05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 TP 480,000원 | CP 338,000원

삼성SDI(006400)

BUY | TP 667,000원 | CP 427,500원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6일 | 산업분석_Industry

2차전지

추론의 시대와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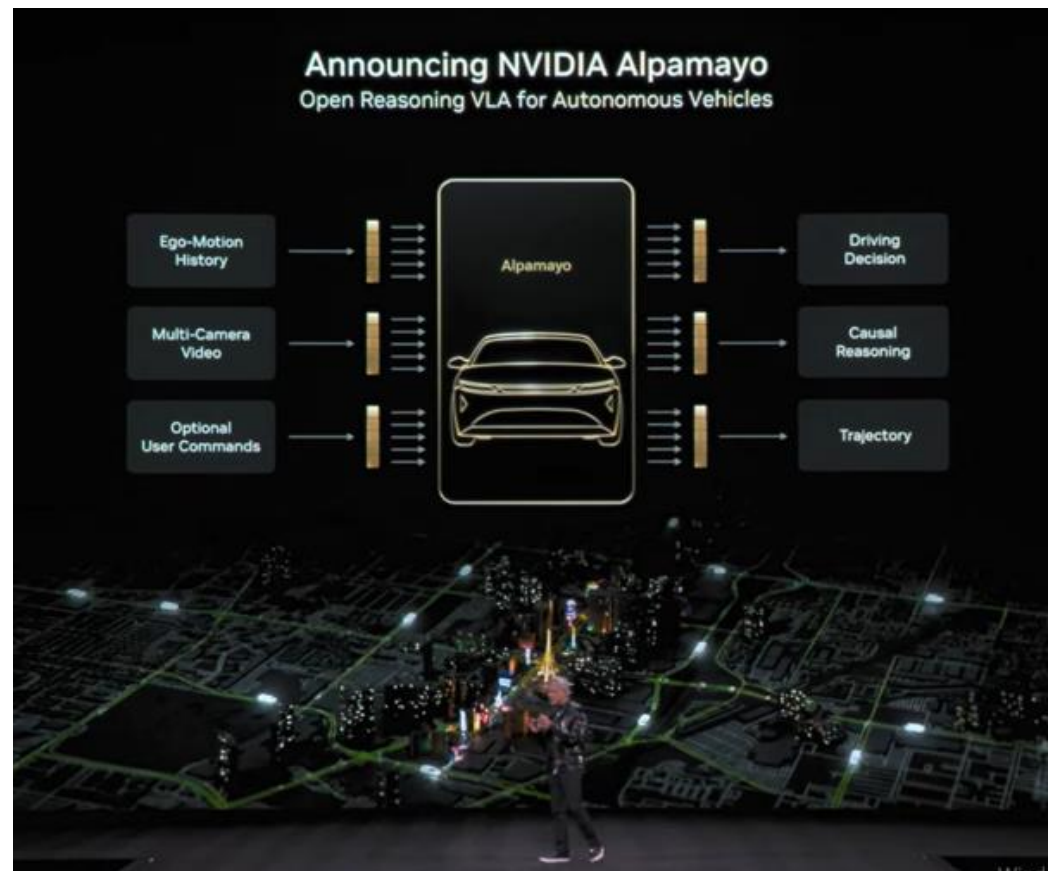
저장시설에서 생산시설로 진화하는 데이터센터

오늘날 모든 논의의 시작점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ESS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지점은 AI의 역할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는 단계다. 일련머스크가 2025년부터 자율주행 레벨이 추론 단계에 진입을 언급한 것, 젠슨황이 CES 2026에서 추론형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추론推論". 밀 '추'와 논할'론'. 미루어 생각하여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뜻이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을 바탕으로 미루어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Inference' 역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의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다. "새로운 결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담겨있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이었다. AI가 추론의 영역에 진입한 이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 데이터센터는 새로운 답과 새로운 결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토큰 팩토리

추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데이터센터를, 젠슨황은 토큰 팩토리라고 명명했다. 토큰을 만들어 새로운 지능을 만들기 때문에 지능 공장(Intelligence Factory)이라고도 한다. AI 토큰은 새로운 결론,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레고 블록을 하나씩 조립해 성이나 자동차를 완성하듯 AI도 토큰을 차례대로 조합해 문장과 이미지, 나아가 제품의 물리적 행동 방식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토큰이 모여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Physical AI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가 AI토큰인 것이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가치 측정 방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센터의 가치를 더 많은 데이터(TB) 저장 용량을 가지고 측정했다면, 이제는 AI데이터센터가 생성한 토큰을 가지고 데이터센터의 가치가 측정된다. AI 산업의 경쟁 논리가 더 이상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 아니라 GPU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은 누가 토큰을 많이 생산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토큰 생산 경쟁에서의 성패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프라의 중심에 '전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추론을 통해 토큰을 생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골드 러시시대의 승자가 청바지 사업가였던 것처럼, 토큰 러시시대의 청바지는 전력이다.

도표 1. 추론 기반의 VLA(Vision-Language-Action) 자율 주행 모델, 알파마요 (CES 2026)



자료: 언론보도

도표 2. Token Factory 개념도



자료: Pan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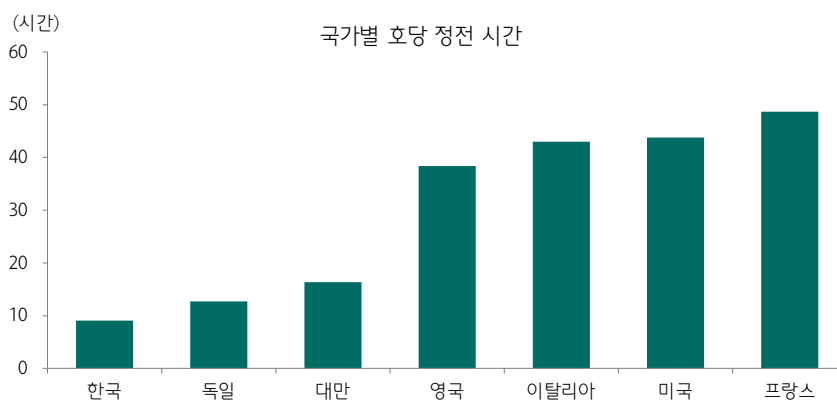
한국 내 AI팩토리 증가의 당위 : 고객의 이익과 정부의 이익

토론 팩토리 경쟁이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치환되는 현 구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장 유리한 토론 팩토리 입지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연간 호당 정전시간(SAIDI)은 약 10분 미만으로 40분 이상의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다. 송배전 손실률은 3.5%로 이 역시 OECD 평균 6%대의 절반 수준이다. 단일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국가가 직접 계통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장점이다. 전력과 별도로 토론 팩토리의 핵심인 HBM 제조 경쟁력은 이미 그 경쟁력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AI 팩토리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력망과 반도체 경쟁력이 결합해 한국은 향후 AI 팩토리 테넌트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최근 SK텔레콤이 엔비디아 멀티테넌트 AI팩토리를 2027년 가동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것, 삼성SDS가 오픈AI 및 엔트로픽과 AI팩토리 임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도 1단계로 SK 5GW, GS 2.4GW, 네이버 1GW 등 총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SK 그룹이 프로젝트를 확장해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AI 토론 팩토리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국가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파를 막론하고 지속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테넌트 사업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팩토리가 한국에 위치하게 될 때, 글로벌 빅테크 및 미국 정부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제1원칙은 상대방과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AI 생산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과 부합하게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 이는 특정 정파나 '정부'가 아닌, '국가'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AI 팩토리 테넌트 사업 및 관련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도표 3. 국가별 연간 호당 정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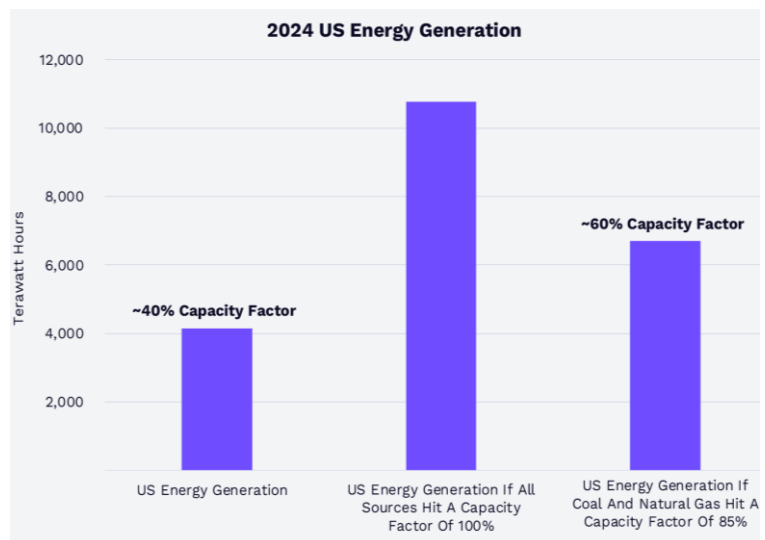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토론 경제 시대, ESS 배터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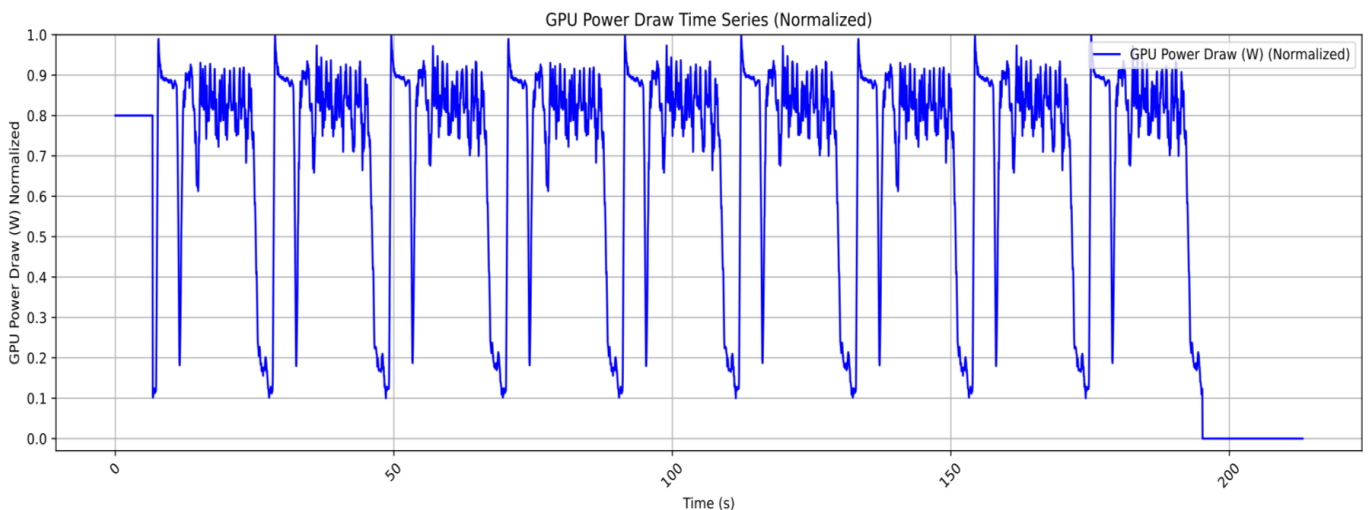
지금까지 장황하게 인공지능과 국가 안보를 언급하였으나, 이 리포트는 ESS 배터리 리포트다. 이제 ESS에 대해 알아보자.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일정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추론이 시작되면 GPU 사용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순간적으로 수백 MW 규모의 전력 급등이 발생하고, 작업이 종료되면 다시 전력 수요가 급감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 급등 시의 최대 전력에 맞춰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가 필요할 때 공급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은 최대 수요에 맞춰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입장에서조차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계약 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공급은 늘 최대 수요에 맞춰 건설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매순간 이러한 최대 전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국 상당한 잉여 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최근 20년간 반도체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 잉여 전력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I팩토리의 증가는 이러한 잉여 전력을 더 확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에 활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활용했을 때의 효율 가치 역시 커지게 된다. 즉,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ESS의 필요성과 수익성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AI 데이터센터 특유의 급격한 부하 변화는 발전소가 초 단위로 대응하기 어렵고, 전력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부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하 변동을 빠르게 흡수하고 완충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이다. ESS가 빠른 속도로 전력을 충·방전하며 전압과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Grid Buffer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I 팩토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ESS 수요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5. 미국 연간 실생산 에너지(좌)와 생산 가능 에너지(중)



자료: ARK Invest, 하나증권

도표 6. 데이터센터의 전력 변동성 확대



자료: ARK Invest, 하나증권

메가프로젝트 필요 ESS 계산 (1)

이제 정량화의 단계다.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공장 내 ESS 수요를 도출해보자. 데이터센터의 경우 측정 단위를 부하(GW)로 제시해 계산이 간단하다.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제시했다. ESS 적용률은, 재생 에너지 선택 비율과 Duration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 국제에너지저장협회(IEA ES)가 소개한 운영 비율 평균치인 10%와 GlobalFoundries 버몬트 반도체 공장의 사례인 40%의 중간 값인 약 20% 대를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ESS 결합비율 20%, Duration 4시간),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향으로 누적 14.4GWh의 ESS가 요구된다. 한편, 반도체 분야의 경우 다음의 논리를 거친다. 삼성전자 DS의 Fab당 평균 부하는 2023년 257MW에서 2025년 289MW로 증가했으며,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21MW에서 261MW로 확대됐다. 가동을 변동 등 고려해 향후 연평균 Fab 당 평균 부하가 연평균 2%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메가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30대 후반에는 약 300MW 후반의 Fab 당 부하가 도출된다(최근 정부 발표자료는 400MW 이상을 가정). 그리고 기업별, 지역별로 Fab 증설 기수를 취합한 후 예상되는 추가 전력 수요에 ESS 적용률을 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반도체 공장 ESS 요구 규모는 2040년까지 약 4.1GWh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총합 18.5GWh의 ESS가 요구되며 2027년~2035년까지 누적 9년간 연평균 2.6GWh 규모가 예상된다. 최근 6년간 국내 ESS 시장 규모가 연평균 1GWh 내외 수준이므로 2.6GWh가 적은 규모는 아니나, 국내 셀 메이커들이 현재 각각 글로벌 10GWh, 2027년 30GWh 이상의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감안하면 실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중요한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도표 7. 국내 메모리 업체별 신규 Fab 증설 계획

기업	지역	투자 내용	투자금액	투자기간	Fab 개수
삼성전자	평택·용인	기존 Fab 증설	2,030조원	~2040년	6기(추정)
	광주	신규 메모리 Fab 2기	400조원	~2040년	2기(공식발표)
	천안·온양	HBM Fab 구축	56조원	~2040년	0.3기(추정)
	Total	-	-	-	8.3기
SK하이닉스	용인	D램 중심 Fab 증설	600조원	~2033년	3기(추정)
	청주	NAND 증설 및 HBM 후공정 강화	100조원	미공개	0.5기(추정)
	호남(서남권)	신규 전공정 Fab 구축	400조원	장기 프로젝트	2기(추정)
	Total	-	-	-	5.5기

도표 8. 메모리 2社 Fab 증설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 및 ESS 설치 잠재수요 전망

기업	지역	Fab (기)	2040년 평균부하 (MW/Fab)	추가 전력수요 (MW)	ESS 적용률(가정, MW)			ESS 용량(GWh) (ESS 적용률 20%)	
					10%	20%	40%	2시간	4시간
삼성전자	평택·용인	6.0	389.5	2,337	234	467	935	0.9	1.9
	광주	2.0		779	78	156	312	0.3	0.6
	천안·온양	0.3		117	12	23	47	0.0	0.1
	Total	8.3		3,233	323	647	1,293	1.3	2.6
SK하이닉스	용인	3.0	351.0	1,053	105	211	421	0.4	0.8
	청주	0.5		175	18	35	70	0.1	0.1
	호남(서남권)	2.0		702	70	140	281	0.3	0.6
	Total	5.5		1,930	193	386	772	0.8	1.5
2社 합계 전력수요(MW)		13.8	374.2	5,164	516	1,033	2,065	2.1	4.1

메가프로젝트 필요 ESS 계산 (2)

상기한 논리는 메가프로젝트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만이 필요한 전력을 단순 계산하여 ESS 예상 수요를 도출한 것이다. 이는 해당 공장들이 본인들만의 전력을 별도로 공급 받는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셈인데, 전력망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그물망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종합하여 ESS 예상 수요를 도출해야 한다.

2025년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6년에 발표된 에너지연구원의 기본연구(25-23)는 대한민국 전력망의 잉여 전력에 기반해 ESS 예상 수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38년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연간 12.5TWh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20GW(119.4GWh) 규모의 ESS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 중 LFP 배터리를 통해 14GW(77.4GWh)의 잉여 전력을 저장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부터 2038년까지 누적 12년간 연평균 6.5GWh의 LFP ESS 배터리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11차 전기분까지 ESS 수요 성장의 논리가 주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간헐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025년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은 2026년에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 전력 급등락 및 반도체 공장 전력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12차 전기본에서는 예상 ESS 수요가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 확정적이다. 결국 향후 10년간 국내에서만 연평균 최소 7GWh 이상의 ESS LFP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누적 80GWh 이상), 이는 현재 국내 기업들의 ESS 연간 글로벌 출하량 규모(10GWh 미만)와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인데다, 3년후 예상되는 글로벌 출하량(30GWh 이상)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실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9. 2038년 대한민국 잉여 전력 전망

〈표 6-2〉 2038년 월별 연속시간별 잉여전력 발생내역

구분	잉여량(GWh)	최대(GW)	발생횟수
1	730.9	20.0	68.0
2	847.7	20.0	89.0
3	1,828.7	20.0	134.0
4	1,559.3	20.0	127.0
5	2,456.8	20.0	187.0
6	763.3	20.0	71.0
7	128.8	16.0	18.0
8	9.1	3.7	6.0
9	551.9	20.0	60.0
10	1,354.3	20.0	125.0
11	1,536.5	20.0	141.0
12	867.7	20.0	98.0
합계	12,635.0	20.0*	1,124.0

자료: 에너지연구원

도표 10. 2038년 대한민국 잉여 발전량 전망

〈표 6-4〉 2038년 월별 일별 연속시간별 최대 누적 잉여 발전량

월 연속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최대
1		4.2	0.9	3.3	1.5	3.9			2.9	0.7	1.9	7.0	7.0
2	13.4	7.3		7.9	6.3	11.6		2.0		8.1	8.0	15.3	15.3
3		8.5	23.0		17.4				17.0	16.6	28.4	5.5	28.4
4		5.3				21.6		7.1		15.1	36.7		36.7
5	58.5	82.6	60.0	69.0	28.8		23.4		41.1	37.4	44.3	64.6	82.6
6	89.0	110.8	112.5	112.6	112.0	108.5	53.4		32.3	110.2	112.9	86.8	112.9
7	118.3	113.9	117.5	114.2	118.6	109.9	52.0		23.0	114.3	119.4	108.1	119.4
8		27.3	103.5	117.4	119.2				107.9		116.8		119.2
9	94.6	111.3			106.2	114.0			102.9	115.2	108.2	101.4	115.2
10					114.2	116.9			118.1	108.5			118.1
11	108.1				111.9				106.8	93.4		114.1	114.1
12										107.2			107.2
16												118.5	118.5
최대	118.3	113.9	117.5	117.4	119.2	116.9	53.4	7.1	118.1	115.2	119.4	118.5	119.4

자료: 에너지연구원

한국 배터리 3사 국내 ESS 공급 가능 CAPA

한국 배터리 3사의 국내 ESS 배터리 CAPA는 현재 충분히 갖춰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LFP 배터리 라인 가동을 준비 중이며, 2027년초부터 1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계획 상으로는 5GWh 내외까지 단기간내 수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미 미국 및 중국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이므로 국내 공장 증설에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추가 증설 대응 여력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삼성SDI는 현재 울산에 약 10GWh ESS 배터리 공장이 있으나 모두 삼원계로 대응 중이다. 향후 LFP 중요성 높아지면서 전환 필요성 높은 상황인데, 삼성SDI 역시 미국에서 2026년 말부터 LFP 배터리 생산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공장 역시 LFP 전환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SKOn의 경우, 서산 7GWh 공장 중 절반인 3GWh를 ESS LFP라인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감안하면 후발 주자임에도 단기간내 국내 LFP 생산 공장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SKOn은 지난 2월 국내 제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에서 전체 물량 565MW 중 절반인 284MW 확보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상기한 메가프로젝트 및 국내 전력 시장 변화로 인해 증가할 ESS 수요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대응 능력은 현 시점에서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는 증설이 필요한데,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ESS 수혜가 큰 셀 메이커 및 관련 부품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권고한다(관련 기업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한중엔시에스 등).

도표 11. 삼성SDI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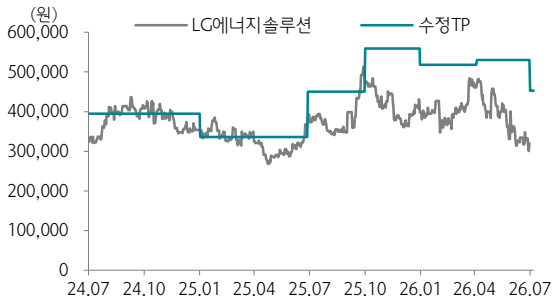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2028F
EV	매출	1,565	1,337	1,090	1,628	1,415	1,514	1,347	1,414	5,620	5,689	6,015	6,510
	영업이익	(391)	(435)	(556)	(243)	(173)	(124)	(109)	(106)	(1,625)	(512)	(403)	(365)
	OPM(AMPC 제외)	-25.0%	-32.6%	-51.0%	-15.0%	-12.2%	-8.2%	-8.1%	-7.5%	-28.9%	-9.0%	-6.7%	-5.6%
	AMPC	109	66	20	0	40	86	42	0	195	168	103	166
	OPM(AMPC 포함)	-18.0%	-27.6%	-49.2%	-14.9%	-9.4%	-2.5%	-5.0%	-7.5%	-25.4%	-6.0%	-5.0%	-3.0%
ESS	매출	665	673	667	931	845	778	1,081	1,664	2,935	4,368	6,268	7,435
	영업이익	45	15	(35)	(72)	19	249	13	46	(47)	328	201	253
	OPM(AMPC 제외)	6.8%	2.2%	-5.2%	-7.8%	2.3%	32.0%	1.2%	2.8%	-1.6%	7.5%	3.2%	3.4%
	AMPC	0	0	0	80	40	22	104	229	80	395	1,297	1,832
	OPM(AMPC 포함)	6.8%	2.2%	-5.2%	0.8%	7.1%	34.8%	10.8%	16.5%	1.1%	16.5%	23.9%	28.0%
Battery Others	매출	751	952	1,063	1,063	1,095	1,228	1,314	1,418	3,829	5,054	5,721	5,961
	영업이익	(216)	(77)	(59)	(103)	(104)	(73)	1	34	(455)	(142)	109	149
	OPM	-28.8%	-8.1%	-5.6%	-9.7%	-9.5%	-6.0%	0.1%	2.4%	-11.9%	-2.8%	1.9%	2.5%
Non-Battery	매출	196	218	232	237	222	250	267	243	883	982	1,056	1,149
	영업이익	18	33	39	39	21	44	49	34	130	148	177	194
	OPM	9.3%	15.1%	16.8%	16.6%	9.5%	17.8%	18.2%	14.1%	14.7%	15.1%	16.8%	16.9%
Total	매출	3,177	3,179	3,052	3,859	3,576	3,769	4,009	4,739	13,267	16,093	19,060	21,055
	영업이익	(434)	(398)	(591)	(299)	(156)	204	99	238	(1,722)	385	1,484	2,230
	OPM	-13.7%	-12.5%	-19.4%	-7.8%	-4.4%	5.4%	2.5%	5.0%	-13.0%	2.4%	7.8%	10.6%
	지배주주순익	(221)	(153)	48	(324)	(28)	342	198	306	(650)	819	1,630	2,239

자료: 삼성SDI,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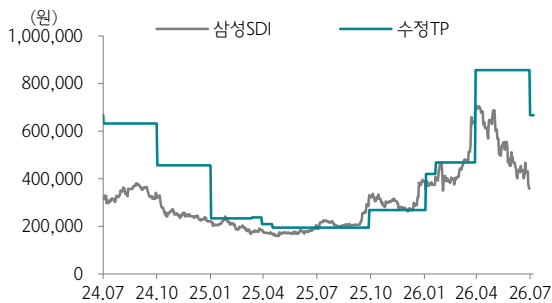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31	BUY	480,000		
26.5.4	BUY	530,000	-27.91%	-8.87%
26.1.30	BUY	518,000	-21.84%	-6.47%
25.10.31	BUY	559,000	-25.16%	-13.33%
25.7.28	BUY	450,000	-14.66%	14.22%
25.1.31	Neutral	336,000	-3.53%	-20.24%
24.10.29	Neutral	395,000	-3.37%	-12.78%
24.7.26	BUY	395,000	-3.77%	10.51%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SDI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31	BUY	667,000		
26.4.29	BUY	857,000	-37.89%	-17.74%
26.2.20	BUY	469,000	-2.76%	44.99%
26.2.3	BUY	420,000	-8.65%	-2.86%
25.10.29	Neutral	268,000	15.57%	-2.05%
25.5.16	Neutral	195,000	1.79%	60.00%
25.4.28	Neutral	210,000	-17.31%	-12.57%
25.1.31	Neutral	233,010	-14.72%	3.78%
24.10.31	BUY	457,208	-44.86%	-27.73%
24.7.31	BUY	632,455	-46.46%	-40.02%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8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연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연수)는 2026년 8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61%	1.39%	0.00%	100%

* 기준일: 2026년 8월 5일